

<창조적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며>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 미래포럼 이사장)

2007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을 수료하는 여성 활동가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전한 격무와 생경한 과제로 힘에 부치는 순간도 있었을 것인데 꿋꿋하게 오늘의 결실과 보람을 이루어 냈습니다. 매우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여성 활동가들에게 본 과정은, 그간 소진되었던 몸과 마음, 그리고 학습과 재충전에 대한 목마름을 해갈하고 부단한 자기 계발과 성장에 대한 열망을 성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한 자기 수련과 네트워크를 통한 우정과 연대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모두가 공히 한국사회의 중요 리더로서 함께 성장해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역사적인 과제를 치렀습니다. 다름 아닌 일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지하듯이, 선거 기간 내내 사회적 위기를 해결해줄 '카리스마'적 리더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았고, 결과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렵게 획득한 '사회'의 주도권을 '국가'에 넘기자는 것으로, 시민의 자율적 역량을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적 고난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런 시민사회가 민감하게 포착하고 적절한 자구책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적 실천을 조직해내지 못했다는 뼈아픈 자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시민운동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에 대하여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새로움의 화두는 다름 아닌 지역과 돌봄, 그리고

상상과 창조였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우리 시대의 과제는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며, 이를 위한 실천은 새로운 상상과 창조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위기를 정 중앙에서 뚫고 나가는 방법은 바로 시민의 삶 한 가운데에서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에 의한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함께 꾸준히 감싸고 어루만져 아픔을 치유하는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이제 위기를 풀어나가는 두 개의 해법을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카리스마적 해결'의 리더십이고, 다른 하나는 '함께 치유'하는 리더십입니다. 두 개의 해법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또 그 실효성의 차원에서 무엇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을 기억해보면, 난세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영웅이 아니라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위기를 아픈 눈으로 살피고 귀 기울이며 손 잡아주는 구원의 존재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시민사회와 여성운동에 전과 같은 중요한 의미와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성의 창조적 치유의 능력이 곧 새로 오는 시대의 리더십이 될 것입니다.

여성 활동가들이 이러한 리더십을 담지한 미래의 지도자로 발돋움하는데 양질의 교육과정을 기획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그리고 이 과정을 후원해준 유한킴벌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시대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는 리더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쇄신의 노력을 거듭하는 여성 활동가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새 시대의 리더입니다. 거침없이 당당하게 길을 열어 가십시오.